

# 정부, 수도권 포함 산단·특구 입지규제 완화

## 현오석 부총리 광양제철 방문, 정책 전면 재검토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 불균형 초래” 긴장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1일부터 1박2일간 전북 군산 새만금, 경남 창원, 전남 광양 등에서 진행된 경제현장 방문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면서 “중요하고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려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입지의) 가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가능별 규제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수도권이기에 때문에 푼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면서 “수도권 존을 풀겠다고 하면 당장 반대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말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정치권까지 논의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며 “어떤 데는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데는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도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다가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로 좌초됐던 수도권 일부 지역 내 공장 신·증설과 대학이전 등



현오석(왼쪽에서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전 광양제철소 1고로를 방문해 산업현장에서 더위와 싸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비수도권과 시민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일시 보류한 상태다. 따라서 언제든 수도권 완화 정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정부 정책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지방의 경쟁력은 더

욱 약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적인 하게 전력 수급을 위해 절전 경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흔들리는 서해

## 신안 등 울들어 45차례 중소형 지진 잇달 발생 전문가 “확대해석 금물”

우리나라 서해에서 지진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다.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으나 예민한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7분께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북위 36.20도, 동경 126.16도)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2시간여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에는 이 지역 인근(북위 36.20도, 동경 126.15도)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있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5분과 8시 27분에도 이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연거푸 감지됐다. 반경 3~4km 안에서 불과 4시간 사이에 네 번의 지진이 발생한 셈이다.

충남 보령 외연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인 이 해역에서는 지난 6월 5일을 시작으로 두 달 사이 2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을 놓고 볼 때 편상 표기하는 행정구역은 다르나 위도(북위 36.19~36.23도)·경도(동경 126.11~126.18도) 상으로는 거의 유사한 지점이다.

올해 현재까지 서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신안군과 백령도 인근 해역 등지를 포함해 모두 4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63차례 가운데 71%가 넘는 수치다.

최근 보령·군산 해역 지진 현황



자료/기상청

대부분 소규모지만 지난 5월 18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처럼 ‘역대급’ 기록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은 1978년 기상대 관측 이후 6번째로 큰 규모다.

최근 서해 해역에서 잇달아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측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낸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원인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해 해역에서의 잦은 지진은 최근 일이 다층 분석 등 심층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 클린디젤자동차 기반시설 건립공사 기공

## 광주 클린디젤산업 시동

1일 오후 광주 진곡 일반산업단지내 부지에서 열린 ‘클린디젤자동차 기반시설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강운대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유영범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원장 등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생명 경시 풍조 우려” vs “연명치료는 무의미”

## 내년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4월 실시

###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반 논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 31일 가족 동의하에 더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정부에 권고한데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의식 불명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과 병원 합의로 인공호흡기를 떼는 건 생명 경시 행위라는 시각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맞선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단이야말로 일종의 인권 침해로 윤리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람의 생사를 두고 할 수 없는 일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정다희(27·여)씨도 “개인의 생명을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의료진이 결정하는 건 문제”라며 “자율적인 시합이 아니고 법제화하면 생명경시 풍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사 김모(31)씨는 “의식도 없고 회생 가능성도 없는 환자에게 연명할 기계만 꽂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환자에게도 큰 고통”이라며 “머칠 더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대현(31) 씨는 “남은 가족이 어떻게 생활을 이어가기도 환자의 생존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은 “대다수 사람이 수긍할 만하다고 하는 선을 정해주는 건 이런 일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의무”라며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각에선 연명치료를 대한 찬반양론이 일기 시작한 것 자체가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이 올해보다 3개월 이른 4월에 치러지며 7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올해 6월에서 7월로 미뤄진다.

안정행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 일정을 예년보다 두달 빨리 발표했다.

이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7월27일 치러진 9급 공무원 공채 1차 필기시험은 내년에는 4월에 치러진다. 9급 공채시험은 작년 6월29일 개편 이후 수험생들에게 1년간 여유기간을 주고자 올해는 7월에 치러졌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시기가 기존대로 4월로 복귀한 것이다. 정부는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개편 당시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을 선택과목에 추가했다. 또 내년도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7월에 실시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올해와 같은 2월에 시행되며 외부고시를 대체할 외과교부후자 선발시험도 5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은 2월에 시행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통상 10월 말 발표하던 다음해 채용시험 일정을 다소 서둘러 발표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채시험 제2차와 3차(면접) 시험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일정은 오는 10월말 안행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내일 방북

## 정몽헌 전회장 10주기 행사 정부 “정치적 메시지 없다”

정부가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의 금강산 방문 신청을 1일 승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대아산은 오는 3일 금강산에서 정몽헌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개최할 목적으로 현정은 회장 등 38명의

방북을 신청했고 정부는 매년 개최해온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추모식만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추모 행사로서 정치적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현 회차 일행은 3일 오전 9시40분께 동해선 남부출입사무소를 통해 육로로 방북한 뒤 당일 오후 4시에 귀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호남대학교  
어등산골프장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월 81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월 430만)

대지/전답

- ▶ 신기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부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 전원주택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용도)
-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